

# 淸 황제들의 南巡

- 滿洲적 가치 재생 프로젝트인가?\*

송미령\*\*

## I.

순행은 황제가 수도를 떠나 외부에서 행하는 활동의 총칭으로 지방순시, 祭祀, 親征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황제가 제국의 주요 지역을 다니면서 民情을 살피고, 통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순행을 활용하였으며, 동시에 제국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도 그 이름 아래 진행하였다. 이렇듯 巡幸은 황제의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淸 제국의 황제들을 들 수 있다. 그 순행의 방향에 따라 東巡, 西巡, 南巡, 北巡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황제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매년 2~3회 순행을 하였다. 이러한 청 황제들의 순행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남순(江南지역으로의 순행)의 경우, 청 제국의 지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江南의 漢族 사대부들을 회유하고 통치권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는

---

\* Michael G. Chang, *A Court on Horseback: Imperial Touring and Construction of Qing Rule, 1680-178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7

\*\* 전북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乾隆帝(r.1736~1795)보다는 제국의 기반이 확립되는 康熙帝(r.1661~1722)의 남순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550쪽에 걸쳐서 강희제와 건륭제로 이어지는 남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말을 타고’ 도시에 들어서는 乾隆帝와 그 수행원들을 그린 그림을 싣고 있다. 그 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륭제의 侍衛들은 하지만 칼로 ‘무장’을 하고 활과 화살을 휴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심사숙고하여 논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을 의도하고 책의 표지에 싣는 그림을 골랐을 것이다. 그 그림에서 저자의 의도로 강조된 것은 ‘騎馬’와 ‘武裝’을 한 건륭제의 모습이었다. 청 제국의 성공요인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이미 그림을 통해서, 황제의 순행에 대해 漢族 중심의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청 제국 황제들의 南巡은 漢化의 표시로 보거나 漢문화를 중시하는 정치행위로 다루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서술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된 방대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하고, 평가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개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 II.

이 책은 1680년대부터 시작된 강희제의 남순부터 1785년 건륭제의 마지막 남순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국의 중심과 강남(江蘇와 浙江)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계속되는 협상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즉, 청 조정이 그들의 권위와 지배를 ‘강남’이라는 지역과 그 구성원에게 정통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을 ‘순행’을 통해서 접근한 것이다(pp.6~7). 특히 남순을 청 조정이 군사적 위협, 治水의 위기, 인구 압력의 증가, 상업

화, 사회적 유동성 등 광범위한 역사적 환경에 대응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건륭연간의 남순이야말로 청 전성기 정치문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며, 청의 지배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강희제의 남순 뿐만 아니라 건륭제의 경우도 청 제국의 지배와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로서 조명하였다. 즉, 건륭제가 진행한 여섯 차례의 남순을 검토함으로써, 단순히 전성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인 목표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8개 장에 걸쳐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목차는 아래와 같다.

1장 황제 순행의 역사적 선례와 다면적 가치

2장 ‘조상을 따라서’: 1680년대와 1740년대 민족적 왕조에서 순행의 필요성

3장 말 위에 朝廷 올려놓기: 朝廷의 이동에 따른 물자지원과 정치학

4장 평화의 위기와 제국의 정치학: 전쟁, 순행 그리고 군사적 준비

5장 ‘청렴과 검소로의 복귀’: 상업화의 시대에 있어서 남순과 엘리트 내부의 경쟁

6장 문화적 포용으로서의 남순: 詩의 가치 정하기와 한족의 학문의 수용

7장 건륭제의 강남지역과의 시학적·정치학적 대면

8장 민족 지배 정치학의 대중적 인식과 최우선 가치, 1765-1785

1장에서는 순행의 역사적 계보를 검토하였다. 청 제국의 순행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북방민족의 여러 경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세기에 청 제국에서 실행된 순행은 그 이전의

非한족 정권인 遼, 金, 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전 정권에서 순행은 계절적인 여행의 형태로 나타났고 훌륭한 통치자의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2장에서 저자는 강희제와 건륭제가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만주족의 조상들이 강조했던 덕목의 상징으로 순행을 실천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강희제의 첫 번째 동순은 孝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추진되었고, 건륭제도 이러한 점을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1680년대 강희제가 추진했던 여러 차례의 순행들은 한족의 고전에서 언급한 원칙들 때문이 아니라 모두 군사적 필요와 이념적인 수행을 통해 민족적 지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pp.80~81). 이를 위해 민간과 군사적 영역에서 아이신 기오로(Asin gioro) 씨족의 조상에 대한 추모의 상징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황제의 순행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청 제국의 내륙 아시아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자는 황제의 순행이 孝, 부지런함 및 자비와 같은 추상적이고 탄력적인 개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정복 엘리트의 정치적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1680년대~1740년대에 확대되고 부활한 남순은 청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한족 사대부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건륭제의 첫 번째 남순은 治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민족적 지배를 확실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원칙과 같은 요소들을 강조하였다. 건륭제는 이전의 비한족 정권이 수행했던 순행의 성격을 수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조상을 강조하는 한족적인 가치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3장과 4장은 건륭제의 남순 과정에서 표현되는 군사적인 측면에 대한 서술이다. 3장에서 저자는 남순의 노정을 확인하고 일정을 확정하

는 세부 계획이 정복 엘리트인 만주와 몽골 旗人들에 의해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황제의 순행에서 노정을 결정하거나 숙박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 일은 總理行營處에서 담당하면서 軍機處는 그 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군기처는 雍正年間(1723~1735)에 설치된 중추적인 기구로 청 제국의 행정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다. 여기에서 저자는 軍機大臣들이 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행정조직이 아닌 ‘기인’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에서 한족은 물론 漢軍도 제외되었다. 기인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한 남순의 일정에는 사냥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주족의 사냥은 청초에 재구성되었는데, 야영지에서 군사들의 천막은 황제의 천막을 보호하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이는 내륙아시아의 군사적 이동과 유산을 계승한 것이었다. 건륭제의 남순에서도 물란(木蘭, Mulan)에서의 황실 사냥시에 보여주었던 이동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군사적 정찰, 황제 경호 등 황실 사냥에서 하던 일이 그대로 남순에서 반복된 것이었다.

또한 저자는 4장에서 건륭제가 황제의 순행을, 만주족의 군사적 성격의 모델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였는지를 검토하였고, 느슨해진 기인들에게 활동적이며 훈련된 정복엘리트의 모델을 강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건륭제는 남순 시에 말을 타고, 기마와 궁술을 보였고 杭州의 駐防八旗들의 군사 활동을 보이면서 만주족의 열정을 규정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러한 강남에서의 만주족의 군사적 활동은, 만주와 몽골의 책임감과 특권을 통해서 제국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지배원칙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순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륭제가 베이징과 지방의 팔기들이 군사적인 역량을 상실하였다는 것

을 감지하고 확인한 것에서부터 의도된 것이었다. 1746년 건륭제는 베이징의 정예부대의 군사적 능력이 형편없음에 충격을 받았고,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八旗들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동남부의 주방팔기들의 상황에 건륭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杭州 등지의 팔기들이 모두 한화되어가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그는 강희제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기질을 상실한 것을 민족적 정체성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주방팔기 중에서도 훈련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提督들과 總兵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평화로운 시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1739~1741년 사이에 총독과 순무의 80%이상이 기인이었기 때문에 건륭제는 지방의 고위관원을 지명하는 일에서 군사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건륭제는 총독과 순무, 지방의 군사 지휘관들이 만주족들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pp.173~174). 그는 민족적 정체성의 이념적인 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건륭제의 입장에서는 만주어를 말하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만 고려해서 군사적인 일을 무시하고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제국의 안전과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까지, 만주족 군대가 천하무적이라는 신화는 開國方略에서 칭송되고 전설화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장과 6장은 강남 한족 엘리트 집단을 포괄하려는 건륭제의 노력을 탐구한다. 5장은 건륭연간의 청 조정은 남순 기간 동안 여전히 중추적인 그룹으로 남아 있는 한족 사대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행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건륭연간 이 영역에서 청 조정의 성공은 지역 사회에서의 한족 사대부의 경제적 문화적 지배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승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업화 인구의 확장, 인구의

유동성의 결과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청 조정과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揚州의 鹽商들은 건륭제의 2차 남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pp.223~229)

특히 1750년대 후반에, 건륭제가 揚州의 鹽商들과 기인들 사이의 결탁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또한 1760년대에 치수와 군사적 위기가 진정되면서, 건륭제는 ‘청렴과 검소함으로 회귀’할 것을 강조하였다(pp.219~220). 18세기 후반 날로 심해지는 인구이동, 인구 압력과 상업화는 과거제도와 지역사회에서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지역엘리트들에게 적당한 역사적 환경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남순은 이러한 내부 엘리트의 긴장을 이용하여 조정에 유익하게 하였다.

6장에서는 청 조정이 남순기간 동안 지역의 학자적 엘리트들의 협력을 구하려는 노력을 추적하였으며, 특별채용 등에 대해서 다뤘다. 당시 지방, 특히 강남의 인사적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황제의 남순시 특별과거를 통해서 등용하였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대부로서 지역에서의 특권이 확대되었다. 건륭제는 첫 번째 남순부터 강남의 한족 사대부들에게 글을 짓게 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사품을 내렸다. 특별채용에서는 많은 이들이 등용되지는 못했지만,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시와 작문의 경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이후 이어지는 건륭제의 남순에서 계속되었다. 건륭제의 남순은 지역의 엘리트들에게 그들이 사대부로서 지역 정체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7장에서는 건륭제의 강남지역과의 시학적·정치학적 대면은 일반적으로 건륭제가 한족 사대부들에게 天子로서 어필한 것으로, 혹은 중원에서 한족의 경제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마주하면서 청 조정이 내놓은 유화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건륭제가 남순 때 쓴 시를 보면, 청 조정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남순에서의 건륭제의 모습은 그의 이미지와 권위를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시 속에서 자신을 부지런하고, 자비로우며, 효성이 지극한 통치자로 표현하면서, 근면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모습과 여행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8장에서는 제국의 성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의 건륭제의 5차, 6차 순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건륭제의 순행을 다룬 연구에서 네 번째 순행(1765)과 다섯 번째 순행(1780)사이의 시간차이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으나, 15년의 시간을 흐른 뒤에 갑자기 1780년대에 5차, 6차 남순을 결정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治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급격하게 쇠퇴하는 정치적 정통성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1778년의 金從善 사건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錦縣의 生員 金從善이 건륭제가 동순에서 환궁하는 길에서 후계자를 세우고, 황후를 복위시킬 것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이때 건륭제는 金從善이 제기한 문제에 일일이 반박 해명을 했고, 결국 그를 사형에 처했다. 건륭제는 1755년에 건륭제의 네 번째 남순 과정에서의 일로 비밀리에 폐위되었다고 알려진 那拉氏의 일을 언급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10여 년 전의 사건이 민간에서 여전히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을, 건륭제는 그동안 자신이 남순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했던 민족적 지배의 정통성이 훼손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5, 6차 남순을 추진하였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 III.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책은 청 제국 황제들의 南巡을 한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을 갖고 서술되었고, 세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新淸史라 불리는 연구경향으로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20년 정도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블린 로스키(Evelyn S. Rawski), 파멜라 크로슬리(Pamela K. Crossley),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 피터 퍼듀(Peter C. Perdue), 제임스 밀워드(James A. Millward) 등이 있다.<sup>1)</sup> 이러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경향의 특징은 청의 통치 집단인 만주족에 많은 관심을 쏟으며, 일방적인 漢化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만주족이 유교를 기반으로 한 한족의 문화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특히 청 전성기의 황제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노력과 조치들을 통해서 그들이 문화적으로 변용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경향의 연장선에 있다. 전반적으로 저자는 건륭제의 남순이 내륙 아시아의 요소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민족적 통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책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고 제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말 위의 조정’이 바로 그것이다. 건륭제는 騎馬를 만주족 고유의 방식의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1) 로스키, 『최후의 황제들』(까치, 2010)(←*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amela K.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엘리엇, 『만주족의 청 제국』(푸른역사, 2009)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퍼듀, 『중국의 서진』(길, 2012)(←*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James A. Millward,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고위 군관들이 가마를 타는 것을 금지하였다. 가마를 타는 행위자체를 게으름과 해이의 근거로 이해하였고, 기마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건륭제는 남순을 비롯한 여러 여행에서 직접 말을 타면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순행을 통해 조정을 ‘말 위’에 얹음으로써 민족적 지배의 정체성과 성격을 보여주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건륭제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건륭제는 만주족이 漢化되어가는 현실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 만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제국의 안녕과 연결된 것이었다. 이에 18세기 중반에 건륭제는 순행을 ‘말 위에서의 지배’의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는 행위로 계획하였다. 남순에 앞서 건륭제는 자신의 능력을 말 위에서의 지배에 정통한 스텝지역과의 전쟁과 외교관계에 발휘하였고, 스텝지역에 정통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개념은 ‘Ethno-dynastic’과 ‘Manchu exceptionalism’이다. ‘민족-왕조의’와 ‘만주지상주의’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은 만주족에게 있어서 천하를 통치하는 의식형태의 최우선은 민족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만주족의 소박함, 武 숭상하는 만주적 가치(엘리엇의 표현을 빌리자면 ‘Manchuness’)을 견지하고 확대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관념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만주족 그 안에 아이신 기오로 씨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제국에서 만주족을 최상위에 두고 모든 성공을 만주족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만주족의 우월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건륭제는 민족적(혹은 宗室적)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순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건륭제가 청 제국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스스로를 자기 치하의 다양한 민족들의 유일한 통일 군주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제 자신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것이어야 했다. 그는 轉輪聖王이었고 칭기즈칸의 후예였으며, 中庸을 온몸으로 체현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제국 내의 다양한 문화를 스스로 구현함으로써 그 문화를 통제하였고, 그 문화의 의례를 스스로 수행함으로써 문화의 중심임을 보였다. 제국 내 각각의 문화는 서로 구분되어야 했고 각각의 자리에 있어야 했다.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혼란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건륭제의 제국에서 만주족·몽골족·한족은 자신의 문화를 온전히 보유하고 서로 섞이지 않아야 했다.<sup>2)</sup> 이 점에서 강희제와 건륭제의 구별점이 뚜렷하다. 그리고, 건륭제가 남순 시에 연출했던 정치적 함의가 담긴 행위들은 한족 사대부나 민간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旗人, 漢軍, 綠營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저자는 종실과 만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종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건륭제가 청 제국과 자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이 책이 신청사의 연구경향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제국의 외연이 아닌 내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참신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다른 연구들은 대체로 비한족과 그들의 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인데, 이 연구는 시선이 제국의 내부로 향하

2) 이에 대해서는 로스키, 『최후의 황제들』(까치, 2010); Pamela K.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참조.

고 있다. 한족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강남’지역에 대해 건륭제가 어떻게 민족적인 성격이 짙은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를 통해서 순행은 정치적으로 강력하고 다면적인 상징적 행위로 내부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신청사의 연구경향은 청 제국 내의 내륙 아시아적 요소를 강조한다. 저자 역시 내륙 아시아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한족과의 관계 설정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는 청 제국의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만주적 가치를 한족의 영역에서도 영향력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남순을 통해 말 위에서의 지배는 더 이상 비한족의 지배와 통치에만 활용되지 않았다. 즉, 건륭제는 그것을 중원의 정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통치하는 데에 이용한 것인데, 건륭제는 그 자신을 말을 탄 열정적인 통치자로, 민족적 지배의 원칙과 근면함을 체현하는 통치자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건륭제는 남순기간 동안에 정통성을 지니고 동시에 민족적으로 효과적이고 관대한 성격이 포함된 지배형태로서 말 위에서의 통치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청의 군주가 이미지를 활용한 정치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건륭제는 육로로 여행을 하든지, 대운하를 통하든지 건륭제는 행정적인 일로 지역을 방문할 때는 물론 揚州, 蘇州, 杭州와 같은 주요도시의 교외를 방문할 때도 늘 말을 탔다. 남순 기간 동안 건륭제는 수리시설을 점검하고 백성들을 살피면서 ‘말 위에서의 지배’의 민족적 왕조로서의 행렬을 정통성을 지닌 것으로 정착하였다. 건륭제는 스스로를 순행에서 만주족의 기질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행동하였다. 건륭제에게 기마는 민족적 영광의 표시였고, 만주족의 군사적 위용, 활동성, 열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책은 건륭제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정치적 행위로서의 청 황제들의 순행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